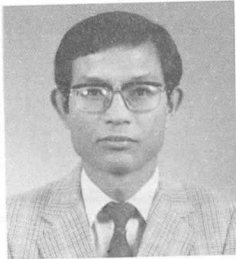


양돈산업의 경쟁력과 적정규모



조 석 진 박사
(영남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1. 머리말

그동안 국내의 양돈산업은 1976년 이후 실질소득의 증대에 따른 1인당 소비량의 증가에 힘입어 다소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꾸준한 성장을 통해 국민식생활 개선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1989년 4월 정부가 미국의 우선협상국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3년(1989~1991)에 걸쳐 총 243개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계획을 예시하면서 양돈산업을 포함한 국내 농업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였다.

특히 1990년 이후 수입이 자유화된 소시지의 수입증대에 따라 국내의 돈육가공품 시장에서 값싼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등 양돈산업을 둘러싼 시장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1994년부터 냉장육의 수입자유화가 예시됨에 따라 이제 국내의 양돈산업은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을 기다릴 여유도 없이 국제적인 상호의존성하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필자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국내의 양돈산업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 어느 규모의 계층이 국내양돈의 중핵(中核) 농가로 남게 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수출 가능성

국내농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양돈은 그동안 타 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연간 약 35만톤의 돈육을 수입하는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 실적은 지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즉 1990년에

일본은 총 37만 1천톤의 돈육을 수입하였으나 한국은 그중 5천9백톤을 수출하여 전체물량의 불과 1.6%를 점유했을 뿐이다.

이는 1차적으로 타 수출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에 기인하나 그 외에도 일본 시장의 특성 특히 상품성의 제고, 수출업체간의 협조체제의 구축 및 정책적인 지원의 미흡 등 다수의 요인이 개재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가격경쟁력이다. 그렇다면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국내의 양돈산업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주요 수출국의 도매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국제간의 가격경쟁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매우 곤란하나 본고에서는 단순히 평균환율을 이용한 지육도매가격의 비교를 통해 국내의 양돈산업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양돈산업의 가격경쟁력은 주요 수출국인 EC 및 미국에 비해 모두 떨어지고 있다.

<표1> 지육도매가격의 국제간 비교 (1986~1991.1)

(단위: 원/kg)

국별 연도별	한국 (A)	일본 (B)	미국 (C)	EC (D)	A/B	A/C	A/D
1986	2,436	2,894	2,005	1,460	0.84	1.21	1.67
1987	1,880	3,191	1,869	1,398	0.59	1.01	1.34
1988	1,894	2,636	1,482	1,017	0.72	1.27	1.86
1989	1,648	2,766	1,527	1,068	0.60	1.08	1.53
1990	2,574	2,616	1,869	1,362	0.98	1.38	1.89
1991. 1	2,978	2,176	1,734	1,169	1.37	1.72	2.55

주: 평균환율에 의한 환산결과이며 대만은 생체가격기준으로 제외되었음.

자료: 일본 『畜産情報』, 1991. 2.

이는 최근과 같이 국내가격이 비싼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했던 지난 3년(1987~1989)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경쟁력과 효율의 추구를 필요로 하는 국제화시대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형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일부 대규모 기업양돈을 제외하면 매우 약한 편이다. 이는 1990년에 일본에 수출한 5천9백톤 가운데 양돈조합의 수출량은 불과 62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다. 더우기 최근의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본의 국내가격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일본시장에의 수출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와 생산여건이 유사한 대만은 연간 약 12만톤 상당을 일본에 수출하여 1990년 현재 일본 전체 수입량의 43.7%를 점유하고 있다. 물론 이는 대만이 한국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같은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만은 최근 그같은 수출정책의 전환을 시사하고 나섰으며 거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개재되어 있다.

첫째는 수출시장인 일본시장의 가격불안정으로 인한 국내생산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이는 1990년을 예로 들면 냉동지육의 kg당 수입가격이 최저 383엔에서 최고 619엔까지 상당한 변화폭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둘째는 그동안 대만은 오랫동안 일본시장에 돈육을 수출해 오면서 국제경쟁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해 왔으며 양돈에 따른 공해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만의 양돈으로 인한 공해는 이제 한계점에 다달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만 정부는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보다 공해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누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단속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① 공해방지를 위한 시설투자로 생산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양돈농가의 탈락현상이다.

② 공해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규모확대 현상이다.

대만에 있어서의 최근의 이같은 현상을 고려할 때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일본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여건은 상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내의 양돈산업 역시 공해방지를 위한 투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유리한 일본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위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시장에 대한 보다 치밀한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그에 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양돈산업의 구조변화와 적정규모

그동안 국내의 양돈산업은 1970년대까지 주축을 이루어 오던 부업양돈의 탈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가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업양돈이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대규모의 기업양돈이 공존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말 현재 국내의 양돈산업은 10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양돈농가의 호수비율이 92%에 달하는 반면 이들이 사육하고 있는 두수비율은 불과 23.8%에 불과하다.

<표2> 사육규모별 두수비율(1975~1990)

연도	두수 (천두)	호수 (천호)	100두 미만	100~499	500~999	1,000~ 4,999	5,000두 이상
1980	1,761	481	66.0%	16.3%	4.0%	7.3%	6.4%
1981	1,831	425	63.3	16.5	5.1	7.7	7.4
1982	2,183	444	63.3	18.1	4.7	7.2	6.7
1983	3,648	539	63.3	19.9	4.8	5.6	6.3
1984	2,958	362	51.0	26.3	5.8	8.1	8.8
1985	2,852	251	40.1	28.5	8.3	11.2	12.0
1986	3,374	262	41.5	27.9	7.7	11.2	11.7
1987	4,281	303	45.0	28.1	7.2	9.9	9.7
1988	4,852	261	39.6	31.0	9.9	10.8	8.8
1989	4,801	198	32.8	35.7	10.9	12.7	7.9
1990	4,528	133	23.8	37.8	15.2	15.5	7.7

자료 : 『축협조사계보, 1991. 2』.

이를 1983년의 호수비율 99% 및 두수비율 63%와 비교하면 그동안 양돈산업의 구조변화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그같은 변화속에서도 1983년도까지는 10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양돈농가의 두수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4년부터 소규모 농가의 두수비율이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면서 반대로 대규모의 전업 및 기업양돈의 상대적 비중이 확대되어 왔다. 즉 사육호수가 줄면서 규모가 확대된 셈이다.

한편 현시점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계층은 어느 계층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위의 <표2>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국내의 돈육가격이 비교적 낮았던 지난 3년(1987~1989) 동안의 두수비율의 추이를 보면 100두 미만의 소규모 양돈농가와 5,000두 이상의 기업양돈의 두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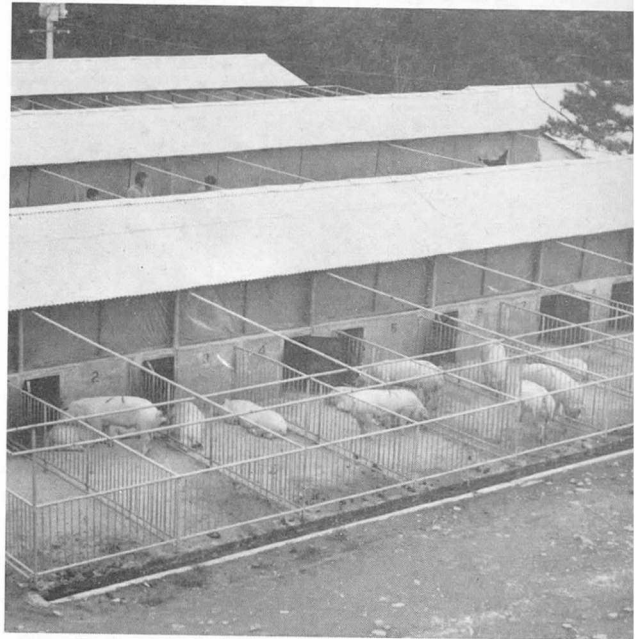
율이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여 온 반면 100두 이상 5,000두 미만 계층의 두수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론할 필요 없이 이들 계층에 속하는 양돈농가들이 주어진 시장여건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따라서 적자생존(赤字生存)의 원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500두에서 5,000두 계층에 있어서 두수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사이에 존재하는 두 계층은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 및 경쟁적 여건하에서 국내의 양돈산업의 적정규모 역시 이 범위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규모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경쟁과 효율의 추구를 필요로 하는 국제화시대에 적응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형태로의 전환을 요한다. 더구나 공해방지를 위한 시설투자 및 임금상승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측면에서 앞으로의 국내양돈산업의 적정규모는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며 궁극적으로는 자가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일관경영 형태의 전업양돈이 주축을 이루면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대규모의 기업양돈이 공존하는 양극화 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맺음말

한국경제의 국제화과정에서 국내농업 역시 국제화를 강요 당하고 있으며 그같은 경향은 앞으로 UR협상의 진전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양돈산업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온 만큼



UR협상의 타결을 기다릴 겨를도 없이 이미 수입자유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발표된 수입예시품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92년부터 돼지의 수입이 그리고 1994년부터는 돼지고기의 수입이 각각 자유화됨으로써 사실상 양돈산업의 완전한 국제화가 선포된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의 양돈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고품질과 제품의 안전성제고라는 무형의 부가가치의 창출이 요구된다.

한편 이를 위해선 생산단계의 차별화는 물론 값싼 수입가공품에 대항하기 위한 가공단계에 있어서도 철저한 차별화와 함께 효율과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자국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의 양돈산업은 이미 가공품시장의 반 이상을 수입품에 의해 점유된 상황에서 값싼 가공원료육 및 냉장육의 수입증대로 더 큰 타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圖 4